

배포일시	2020. 10. 29.(목) 09:00 (총 6매)	보도시점	2020. 10. 29.(목) 15:00
담당부서	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	담당자	과장 임덕빈 사무관 유영은
		전화번호	02-2181-0881 02-2181-0882

현존하는 세계 최고(最古) 측우기 등 국보가 한자리에!

- 10월 30일, 우리나라 첫 '국립기상박물관' 개관 -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역사 박물관인 '국립기상 박물관(서울 종로구 송월동 소재)'을 **10월 30일(금)** 개관한다.
 - 국립기상박물관은 “**날씨의 역사, 기상문화 이야기**”를 중심으로 삼국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유물과 역사적 사실을 전시한다.
 - 전시실은 연면적 **1,063.07㎡(지상 2층)**에 총 7개로 구성되어 △선조들의 측후활동 △근현대 기상관측장비 △기상업무 발전상 등을 엿볼 수 있는 **150여 점의 다양한 유물**을 선보인다.
 - 특히,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강우량 측정기구인 『공주 충청감영 측우기(국보 제329호)』를 비롯하여 『대구 경상감영 측우대(국보 제330호)』, 『관상감 측우대(보물 제843호)』 진품을 만나볼 수 있다.
 - ※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(헌종 3년, 1837)와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(영조 46년, 1770)는 농업을 위한 과학적 발명과 구체적 실행을 증명해 주는 유물로서 큰 가치가 인정되어 국보로 승격되었다(2020. 2. 27.).

□ 국립기상박물관은 서울기상관측소 건물(등록문화재 제585호)을 1932년 건축 당시로 복원하여 건립되었으며, 세계기상기구(WMO)에서 2017년 ‘100년 관측소*’로 선정한 의미 있는 곳이다.

* 100년 관측소(Centennial Observing Station) : 100년 전에 설립되어 환경정보 보존과 자료관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상 분야 유네스코 문화재로, 동북아시아에는 10개의 관측소가 있음(중국7, 한국2, 일본1 / 전 세계 140개)

□ 국립기상박물관은 개관 이후, 화요일~일요일(운영시간 10:00~18:00)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,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당분간 소규모의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.

○ 사전 예약하여 방문하는 어린이를 위해 △측우기와 측우대 만들기 체험이 운영되며, 앞으로 △초청강연회 △특별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.

○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박물관(누리집 <http://science.kma.go.kr/museum>, 대표번호 070-7850-8482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국립기상박물관 개관은 기상역사의 또 다른 분기점이자 시작점.”이라며, “우수한 기상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하여 세계적인 기상과학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 1. 국립기상박물관 주요 유물

2. 국립기상박물관 전시 공간

3. 국립기상박물관 소개 및 찾아오는 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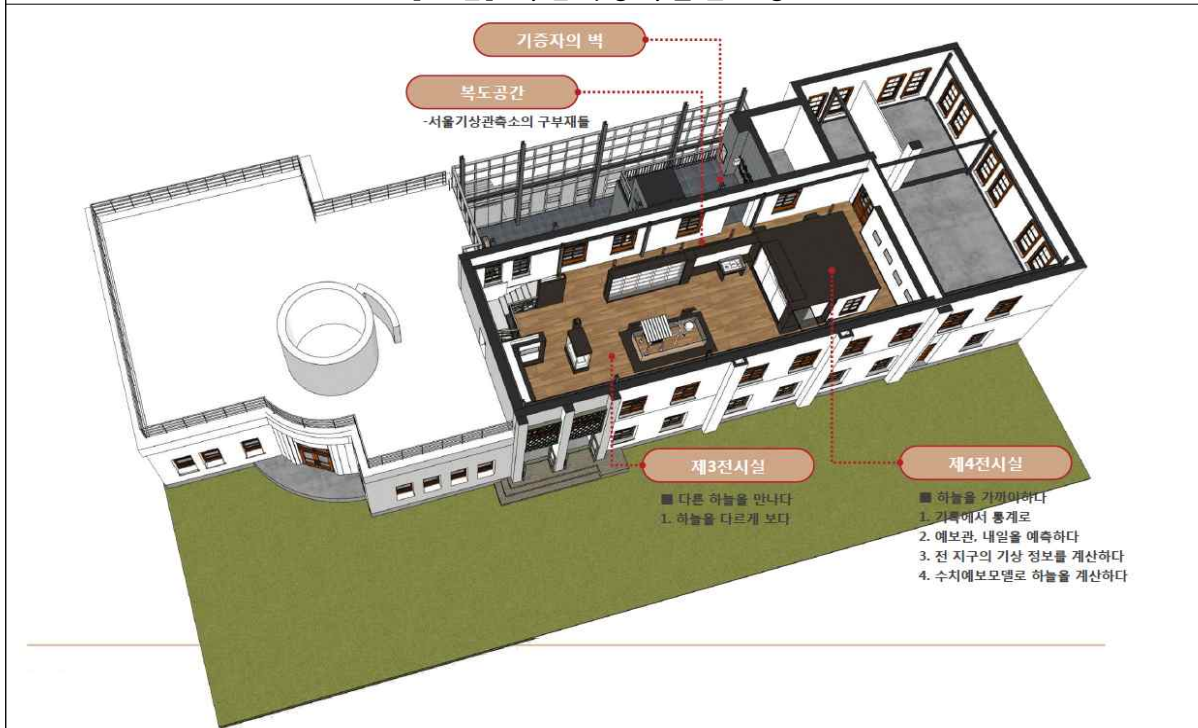
붙임 1

국립기상박물관 주요 유물

명칭	제작연대	크기/소재	특징	
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(국보 제329호)		1837년 (헌종 3년)	높이 31.2 지름 14.5 동합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존 유일 측우기 ○ 3단 분리 구조 ○ 세계 최초 과학적 강우량계 발명의 증거
대구 경상감영 측우대 (국보 제330호)		1770년 (영조 46년)	가로37.8 세로37.3 높이46.4 화강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작연대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측우대 ○ 한국전쟁 당시 부분 손상 ○ 조선시대 전국적인 과학적 기상관측망 운영 증거
관상감 측우대 (보물 제843호)		1441년 (세종 23년)	가로94.2 세로64.5 높이87.7 화강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육면체의 화강암 ○ 가운데 직경 17.2cm, 깊이 60cm 구멍
한국관측소 학술보문 1권		1910년	19.5x27 종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선 기상학사 연구보고서 ○ 측우기, 침성대 등 유럽에 최초로 알려진 보고서
조선총독부 관측소학술 보문 2권		1912년	19.5x27 종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진 등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출간한 보고서
조선고대관 측기록조사 보고		1917년	16x23 종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선의 기상 상황을 중심으로 쓴 논문
기상관측 야장		1904년	11x16.5 종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포임시관측소에서 기상 값을 기록한 책자



[그림] 국립기상박물관 1층



[그림] 국립기상박물관 2층

[건축사적 의의]

국립기상박물관 본관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와 벽돌조가 혼합된 건물(연와조 건물)로 전체적으로는 모더니즘 경향을 띠고 있으나, 패러핏, 포치, 옥상의 원통형 구조물 패러핏 등에서 아르데코(art deco, 1920~1930년대 장식미술)적 장식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단아한 건물이다.

현재 국립기상박물관은 근대 모더니즘 건축 기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, 관측장소와 계절적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식재된 단풍나무, 벚나무 등 기상관측을 위한 부속 시설도 원형이 잘 남아 있어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.

[기상학적 의의]

국립기상박물관(현, 서울기상관측소)은 1932년 11월에 신축되어 193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관측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서울을 대표하는 기후관측소로 기상역사가 숨 쉬는 공간이다. 세계기상기구(WMO)에서 “100년 관측소(Centennial Observing Station, 2017)”로 선정한 의미 있는 장소이다.



①본관



②우량계실



③계절관측목식재지(2종)

[그림] 국립기상박물관(현, 기상관측소 등록문화재(585호) 4종)

○ 찾아오는 길



ADD 서울 종로구 송월길 52 (신문로2가 1-430 (우)03178) TEL 070-7850-8793

주차장이 협소하오니,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지하철 이용시

-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이용 후 도보 10분
- 3호선 독립문역 3번 출구 이용 후 도보 15



버스 이용시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· 서울시교육청 (01-843) | 종로 05 |
| · 육교앞 (13-597) | 서대문 02 |
| · 서울역사박물관·경희공원 (01-008) | 160, 260, 270, 271A, 271B, 273, 370, 271, N26 |
| · 금화초등학교·서울시교육청 (13-134) | 730, 171, 470, 702A, 702B, 705, 720, N37, 7019 |
| · 서대문·서울시교육청 (01-168) | 171, 470, 601, 750A, 750B, 7024, M7145, 01A |